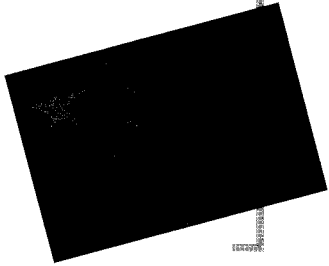


연·중·기·획
국가별 육계산업 현황

제8편

중국의
육계산업



곽준욱 대표이사
(주)건지

세계역사는 격동 속에서도 언제나 같이 유유히 흐른다.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도전과 변화가 있었지만 어제 있던 산과 바다가 바로 그 자리에 있듯 변화에 둔감한 바보마냥 역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찰나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과 변화들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듯 장단으로 느껴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육계산업도 과거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필자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축산업계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2~3천수의 자작농 육계규모가 이제는 계열화사육을 통해 그 몇 곱절로 증대되고, 생닭으로 거래되던 유통질서가 이제는 부분육, 가공육으로 유통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예외가 아님을 우선 밝혀두고 싶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모든 것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회주의는 정치적인 문제이지 축산을 포함한 시장물가는 민주국가의 자유경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필자가 중국에 진출하여 축산자동화설비를 보급하며 10여년 이상 지켜본 중국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속도감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1. 중국의 육계사육현황

지금도 중국의 농촌에 가보면 소규모로 우리의 토종닭 비슷한 종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표 1). 농촌시장 역시 생닭을 자전거나 리어카로 운반하여 시장바닥에서 잡아주는(도계)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시장은 계열화사육을 통한 계육이 공급되고, 그 농가당 사육규모는 점진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에 전년 대비 가금류가 3.77% 증가한 것에 불과한데도 그 양이 1억 8천만수가 된다는 것(표 2)은 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가금육생산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전년대비로도 6.2% 증가한 85만여 톤이 늘어났다(표 3).

이와 같이 전반적인 지역에서 육계사육농가수와 농가당 사육규모가 늘어나는 것(표 4)은 동일한 투자를 통해 육계사육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보통 1년에 2.5kg이상 5회전을 사육하니 계산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느 농가는 1년에 6회전도 가능한데 돈도 좋지만 너무 힘들어서 5회전만 사육한다는 엄살(?)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2. 육계사의 현대화작업

하지만 일반농가는 자금력에서 너무 빈약하기에 대규모, 현대화시설의 농장설립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계열주체들이 현지의 농민 또는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농장설립을 하면서 농촌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농민이나 지방정부는 토지와 인력을 내놓고, 계열주체가 건축과 설비를 지원하여 농민이 사육하도록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정부의 지원금까지 지급되고 있어 정보와 능력을 겸비한 계열주체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표 1> 2007년도 각 성별 연간 육계출하규모별 농가수

구분	2천수 이하	1만수 이하	5만수 이하	10만수 이하	50만수 이하	1백만수 이상	1백만수 이상	합계
북경시	1,478	1,888	2,790	210	25	30	2	6,423
천진시	883	2,485	1,663	234	40			5,305
하북성	239,868	19,542	6,455	246	45	5	1	266,162
산서성	45,889	1,472	376	21	3			47,761
내몽고	564,861	3,894	359	18	3			569,135
소계	852,979	29,281	11,643	729	116	35	3	894,786
료녕성	220,191	41,903	13,165	795	200	10	2	276,266
길림성	395,564	35,623	13,400	600	62		17	445,266
흑룡강성	497,153	14,245	1,726	122	5		1	513,252
소계	1,112,908	91,771	28,291	1,517	267	10	20	1,234,784
상해시	112,556	906	510	72	30			114,074
강소성	392,564	13,496	6,620	492	144	7	7	413,330
절강성	615,729	6,194	4,569	312	73	3	2	626,882
안휘성	926,565	17,200	6,283	862	180	12	14	951,116
복건성	714,079	3,302	1,113	160	39	1	4	718,698
강서성	127,358	7,685	1,377	163	44	1		136,628
산둥성	298,002	91,617	31,326	1,641	337	48	41	423,012
소계	3,186,853	140,400	51,798	3,702	847	72	68	3,383,740
하남성	543,210	32,705	7,864	718	294	15	2	584,808
호북성	33,234	4,932	1,887	308	93	5	1	40,460
하남성	4,033,331	13,526	1,787	201	20	4		4,048,869
광둥성	2,235,218	29,137	15,088	2,142	323	37	13	2,281,958
광서성	3,093,498	19,844	5,744	325	91	6	19	3,119,527
해남성	519,192	2,256	236	52	15	5	1	521,757
소계	10,457,683	102,400	32,606	3,746	836	72	36	10,597,379
중경시	19,525	2,627	1,527	91	8		1	23,779
사천성	8,512,081	7,555	3,119	280	54	3		8,523,092
귀주성	1,441,335	3,270	287	13	3			1,444,908
운남성	1,916,681	4,442	940	74	23			1,922,160
서장자치구	8,143	38	10					8,191
소계	11,897,765	17,932	5,883	458	88	3	1	11,922,130
섬서성	384,785	853	184	2	4			385,828
감숙성	341,696	595	86	2	1			342,380
청해성								0
영하자치구	146,038	1,175	140	6	2			147,361
신강자치구	232,329	3,826	456	42				236,653
소계	1,104,848	6,449	866	52	7	0	0	1,112,222
합계	28,613,036	388,233	131,087	10,204	2,161	192	128	29,145,041
비율(%)	98.17	1.33	0.45	0.04	0.01	0.00	0.00	100.00

〈표 2〉 2007년도 가축사육수

구분	2006년(A)	2007년(B)	증감수	증감률(%)
가금류(억수)	48.37	50.19	1,82	3.77
대가축(만두)	12,287.13	12,309.35	22,22	0.18
돼지(만두)	41,850.39	43,989.46	2,139.07	5.11
양(만마리)	28,369.81	28,564.72	194.91	0.69
토끼(만마리)	21,314.89	22,182.12	867.23	4.07

〈표 3〉 2007년도 가금산물생산량

구분	1998년 (A)	2006년 (B)	2007년 (C)	증감수(만톤)		증감률(%)	
				C-A	C-B	A/C	B/C
가금육(만톤)	774	1,363	1,448	674	85	187	6.20
계란(만톤)	1,781	2,420	2,529	748	109	142	4.33

실제 당사에서 최근 2~3년 동안 육계농장 설비를 마감한 농장의 사육규모가 무창계사 4~15동 단위(사진 1)로 지어졌고, 계사규격도 길이 100~120m×폭 12~14m(〈사진 2〉, 〈사진 3〉)로 2.5~3kg 기준 12~15수/m²를 사육한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일반평사에 왕겨를 깔고 사육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상식망사(다음 호에 소개할 예정) 위에서 사육하기에 왕겨를 전혀 깔지 않고 대담으로 사육하여 통닭은 물론 부분육, 가공육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농가들의 사육성적을 살펴보면 〈표 5〉

와 같은데 출하중량이 보통 2.5kg을 초과하는데도 출하율은 96% 이상을 유지하고 생산지수도 300을 초과한다. 점진적으로 가슴살을 포함 부분육 시장이 증대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곱씹어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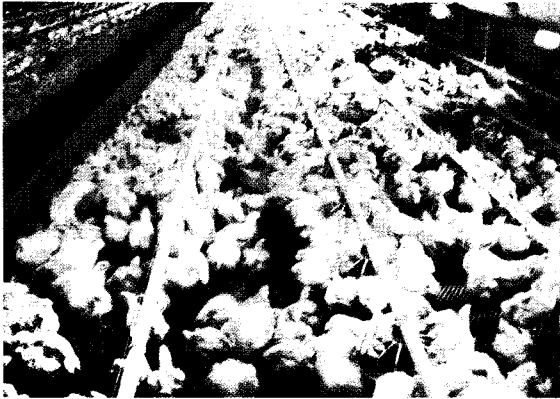
심지어 어느 지역은 육계사 46동을 한 장소에 짓는 것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다. 필자 역시 국내에서 단일농장으로 이러한 규모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집단적으로 농장을 설립해도 입추와 출하는 물론 방역이나 질병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 1〉 15동의 육계사(L120×W13)m

〈표 4〉 2007년도 각 성별 현황

구분	가금류출하량 (만수)	가금육 (만톤)	계란 (만톤)	육용종계장 (개소)	산란종계장 (개소)	종오리장 (개소)
북경시	12,946.73	20.56	15.56	25	22	7
천진시	5,684.10	7.72	19.36	1	10	2
하북성	52,107.82	75.54	396.45	41	102	5
산서성	2,984.10	3.63	47.30	3	48	1
내몽고	7,914.66	17.34	43.02	2	8	
소계	81,637.41	124.79	521.69	72	190	15
료녕성	62,225.24	105.39	204.15	199	105	10
길림성	45,015.16	77.06	86.26	32	28	1
흑룡강성	15,922.40	26.71	91.39	52	38	2
소계	123,162.80	209.16	381.80	283	171	13
상해시	4,458.55	8.52	5.54	17	8	6
강소성	64,241.71	107.35	166.09	232	258	120
절강성	21,806.04	33.43	37.87	56	24	87
안휘성	55,308.44	88.51	108.58	169	60	89
복건성	17,636.83	23.13	39.69	33	8	30
강서성	34,769.38	47.50	36.37	10	9	18
산둥성	139,652.85	205.20	359.90	269	209	96
소계	337,873.80	513.64	754.04	786	576	446
하남성	68,605.01	85.49	336.72	78	113	16
호북성	36,018.90	50.70	110.29	28	41	20
하남성	32,802.03	46.97	85.62	9		2
광둥성	102,284.77	137.32	29.80	120	10	211
광서성	64,538.12	105.27	16.82	95	2	5
해남성	10,029.39	17.48	2.17	67	3	85
소계	314,278.22	443.23	581.42	397	169	339
중경시	12,997.52	20.12	32.35	23	25	144
사천성	51,366.78	77.02	145.22	42	32	71
귀주성	6,873.04	11.71	10.35	5	1	
운남성	14,896.29	25.17	17.95	10	8	
서장자치구	114.23	0.14	0.28	1	1	
소계	86,247.86	134.16	206.15	81	67	215
섬서성	5,054.65	8.30	43.29	15	42	
감숙성	3,441.46	4.15	12.36	7	25	
청해성	215.20	0.37	1.26		2	
영하지치구	1,115.32	1.99	5.65	6	5	
신강자치구	4,840.33	7.77	21.31	10	13	1
소계	14,666.96	22.58	83.87	38	87	1
합계	957,867.04	1,447.56	2,528.97	1,657	1,260	1,029



〈사진 2〉 육계사 내부(고상식계사)



〈사진 3〉 육계사 내부(고상식계사)

〈표 5〉 육계농장의 사육성적

구분	1차	2차(동절기)	3차
사육수수(수)	18,500	21,300	18,400
사육일수(일)	44	41	43
사료섭취량(kg/수)	4.9	4.3	5.0
평균출하체중(kg)	2.65	2.36	2.655
사료요구율	1.85	1.83	1.88
출하율(%)	96	98	98
생산지수	312	308	321

※육계사 : 길이 120m, 폭 13.5m, 중간통로 1.5m

※내부설비 : 오거자동급이기 4라인/동-급이기 간격 72.5cm, 사료반입장치, 낱플급수기 6라인/동-낱플간격 25cm

환풍기 48인치 7세트, 36인치 4세트, 변속환풍기 20인치 2세트, 석탄열풍기 2세트와 비상용으로 사용할 석유열풍기(10만kcal) 1대

다만 아쉽다면 아직 중국의 육계사육농장주가 단열이나 보온, 그리고 환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어느 부분은 지나치게 과잉투자, 또한 어느 부분은 철저히 구두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읽어 볼 수 있다. 아마 이것은 각종 자재비(토지, 건축, 설비 등)가 결코 한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기에 그렇지 않은 까도 생각해 보았다.

혹자들은 중국은 모든 것이 한국에 비해 저저먹기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 몰가

지수를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보다 비싸다는 것이 필자가 그 동안 중국에 몸담아오면서 느낀 것이다.

3. 중국의 육계시세

그 실례로 2007년도의 병아리, 사료, 육계 출하가격(표 6)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순 비교를 해도 결코 한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데 중국인에 비해 한국인의 1인당 GDP가 약 10배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높은 가격

〈표 6〉 2007년도 료녕성 가금류 가격(인민폐 1元=한화 180원 정도)

월	계란 (元/Kg)	산란병아리 (元/수)	산란계 배합사료 (元/Kg)	육계출하가 (元/Kg)	육용병아리 (元/수)	육계 배합사료 (元/Kg)
1월	5.86	2.53	1.53	14.80	2.58	1.81
2월	6.16	2.66	1.53	18.00	2.93	1.79
3월	5.78	2.68	1.53	16.68	2.24	1.78
4월	5.89	2.73	1.54	15.74	2.55	1.85
5월	6.51	2.91	1.61	18.00	3.15	1.90
6월	6.25	3.20	1.66	19.34	3.27	1.96
7월	5.75	3.37	1.64	18.79	3.84	1.94
8월	6.91	3.27	1.65	19.50	5.38	1.97
9월	6.68	3.19	1.67	20.30	4.33	2.03
10월	6.59	3.15	1.67	19.30	3.61	2.04
11월	6.35	2.84	1.76	18.10	3.16	2.15
12월	6.35	2.84	1.76	18.10	3.16	2.15
월평균	6.26	2.94	1.63	18.05	3.35	1.95

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국내 육계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에서 위탁사육을 하면 더 많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금상첨화격으로 계열주체들이 상당한 자금지원까지 해주면서 사육농가의 규모화,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중국에 진출하여 육계사육을 해보자고 열변을 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뿐이어서 많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다.

물론 외국이라는 부담감이 있기에 주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문화가 비슷하고 근거리 에 있으며 그래도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온화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나라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무한한 잠재시장이 있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매력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들 주저하며 하늘 탓만 하는지 모르겠다.

〈표 6〉에서 살펴보듯이 중국도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의 진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필자의 회사가 있는 료녕성 1개 지역만을 살펴보았지만 다른 성도 이러한 형상으로 가격은 진폭을 달리하면서 육계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의 다국적기업인 CP그룹은 일찍이 중국에 진출하여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려 육계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대만의 대성기업도 이에 뒤질 세라 최근에 사세확장을 위해 대단히 분주하다. 금년에만 90여 동의 직영농장을 건축 중에 있고, 다른 성에도 또 다른 몇 개의 중국 업체가 금년에 1백여 동씩을 신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찌 보면 전국이 불붙은 꼴이라 하겠다. 왜? 돈이 되니까.

〈표 7〉 2007년도 중국의 가금산물 수출입현황

구분	총무역액 (만달러)	점유율(%)	전년비(%)	수출액 (만달러)	점유율(%)	전년비(%)	수출액 (만달러)	점유율(%)	전년비(%)
가금상품	202,439	19.25	43.22	105,994	26.20	13.65	96,445	14.91	100.56
양돈산물	137,808	13.10	20.56	90,829	22.45	-7.60	46,980	7.26	193.37
유제품	98,969	9.38	51.34	24,226	5.99	157.12	74,463	11.51	33.47
축우산물	25,203	2.40	11.26	19,419	4.80	6.34	5,785	0.89	31.72
합계	1,051,627	100	27.10	404,589	100	8.67	647,039	100	42.17

〈표 8〉 2007년도 나라별 가금산물 주요 교역현황

순위	나라명	수출액(만달러)	전년비(%)	수입액(만달러)	전년비(%)
1	일본	128,716	1.90	1,298	70.58
2	홍콩	99,029	21.02	232	68.32
3	미국	30,699	7.05	186,092	37.13
4	독일	21,655	6.09	8,349	45.57
5	대만	12,689	75.26	3,046	-8.07
6	한국	9,889	-23.92	436	4.62
10	북한	4,874	-57.49	5.42	-53.53
합계		404,589	8.67	647,039	42.17

4. 중국의 가금산물 수출입현황

이렇듯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육계산업이 증대하면서 이들의 주요목표는 내수시장만이 아닌 수출에 항상 군침을 삼키고 있다. 이미 과거에 일본업체에서 합자투자하여 일본에 계육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터라 항상 수출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물론 수출단가가 내수단가보다 높은 이유도 한몫한다.

〈표 7〉에서 보듯 전체 축산물 무역액 중 가금산물이 26.20%로 수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중국에서의 양계산업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대비 24% 정도 감소했음에도 중국으로서는 6위 수출국(표 8)임을 상기하며

한·중 FTA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실제 중국에서 가금산물의 무역에서 수입은 종계, 종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은 계육과 계란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품질향상을 추구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수출지향책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후의 발전추이

인지하듯이 중국인구의 70%가 농민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파고를 중국 역시 비껴가지 못하고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인력들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각종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번의 식품위생문제가 세계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뒤로 중국정부는 과거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강도로 식품업체의 위생을 점검하고 있어서 이와 더불어 중국의 양계산업은 다른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가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싶다.

중국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3농 정책(농촌, 농민, 농업)을 펼치며 농민달래기를 하고 있고, 내수진작을 위하여 농민들의 가전 제품 구매에까지 지원금을 풀고 있다. 귀농민이 농촌사업을 하면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농민이나 지방정부에서 축사를 지으면 건축 평방미터당 인민폐 50원에서 많게는 200원까지 무상지원해주고, 환경개선과 유기토양보존을 위해 계분을 이용한 유기비료 화사업에 30~40% 정도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물론 개중에는 자금만 빼먹고 가짜서류로 위장하는 사람,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구매하여 모양만 갖추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등 비리도 많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유럽을 포함 주변국들이 축산을 확대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어렵고, 중국경제가 각종 여파에도 아랑곳없이 꺾끗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의 이목은 계속 중국을 주시하고 있고, 그 여파로 중국은 각종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번의 식품위생문제가 세계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뒤로 중국정부는 과거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강도로 식품업체의 위생을 점검하고 있어서 이와 더불어 중국의 양계산업은 다른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가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싶다. 🐔